

수입차 ‘1억대 전기차’ 공세 본격화 보조금 배제 속 트렌드·가격 관건

프리미엄 EV 韓 상륙 가속

테슬라, 사이버트럭 대량 포착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출시 임박
지커, 7X 합류하며 경쟁 격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이 프리미엄 전기차 격전지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중국의 지커 등 수입차 업체들이 1억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전기차 출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형 사이버트럭이 최근 평택항에서 대거 포착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평택항으로 들어온 물량이 100여대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트럭 AWD 트림은 상온 복합 520km, 사이버비스트 트림은 496km의 주행거리를 각각 인증받았다. 최대 견인력은 5톤에 달하며 사이버비스트는 제로백 2.7초로 슈퍼카급 성능을 확보했다. 국내 출시 가격은 1억 4500만원, 고성능 트림인 사이버비스트는 1억 60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도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 IQ는 주행거리는 205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739km(복합 기준)으로 국내 최대 수치를 확보했다. 가격은 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가격이다. 두 모델 모두 정부



테슬라 사이버트럭.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55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5500만원~8500만원은 50%, 85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출시 후 꾸준히 품질 논란을 겪고 있다. 강철 외장 패널 접합 문제와 인버터 결함, 경고등 오류 등으로 10건 이상의 리콜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까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양사는 첨단 주행 기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코리아는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 서비스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테슬라코리아는 공식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FSD 감독형, 다음 목적지: 한국, 곧 출시(Coming Soon)”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과 함께 국내 도로 등에서 FSD 감독형을 통해 시범 자율주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테슬라 차량의 주행 모습을 담은 영상도 올렸다.

캐딜락이 출시하는 에스컬레이드 IQ는 GM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슈퍼크

루즈’가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 약 2만 3000km 이상의 국내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핸즈프리 주행 보조 기술로, 기존 에스컬레이드가 가지던 주행 안정감에 장거리 편의성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고성능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국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합류한다. 지커는 내년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전시장 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커는 중형 SUV 7X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7X는 최고 639마력을 내는 고성능 전기모터를 탑재했으며 주행거리는 중국 기준 최장 543km 수준이다. 중국 현지에서 7000만원~8000만원대로 판매된다는 점에서 국내 가격은 좀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기차 시장은 가격은 낮고 성능은 준수한 ‘가성비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성훈 기자 ysw@metroseoul.co.kr

HD현대-인도 ‘조선 동맹’ 확대 기술·설계·생산까지 실질 협력

정기선 회장-푸리 장관 회동
울산 조선소 시찰하며 역량 확인

HD현대가 인도 정부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나선다. 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13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하딧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을 만나 상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구란갈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를 비롯해 예사 스리바스타바 석유천연가스부 차관보, 락쉬마난 해운 수로부 차관보, 아룬 쿠마 싱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회장, 마두 나이트 코친조선소 회장, 스릴 쿠마 싱 구자라트주디나달 항만청장 등 공기업 최고 경영자(CEO) 및 조선-해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도 대표단은 정기선 회장의 안내로 HD현대가 보유한 선박 설계-건조 역량과 스마트 조선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인도 조선업의 역량 강화와 선대 확대, 기술 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인도 대표단의 방한은 현재 인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마리티엄 암릿 칼 비전 2047’(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추진과도 맞물려 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지난달 27일 열린 ‘퓨처테크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그룹의 미래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HD현대

인도는 해운·항만·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전반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재 1500척 규모인 상선을 2500척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5위권 조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약 2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며, 지난 10월에는 선박 신조 확대를 위해 약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HD현대는 올해 7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인 코친조선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력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협력 범위를 합정 사업까지 확대하며 밀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유혜은 기자 chaledhale@

삼성, 영화제서 ‘시네마 LED 오닉스’ 알린다

AWFF서 개·폐막작 오닉스로 상영

삼성전자가 국제 영화제에서 극장 전용 시네마 LED 오닉스를 알린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컬버 극장에서 열리는 ‘제 11회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AWFF)’에 공식 후원사로 참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영화제는 삼성전자가 2017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극장 전용 시네마 LED 오닉스 스크린이 설치된 컬버 극장에서 영화제 개·폐막작 상영을 비롯해 시상식 등 주요 행사를 진행한다.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은 30여

개국 이상의 아시아 국가에서 호평 받은 영화들을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국제 영화제다.

삼성전자는 이번 영화제 후원을 통해 삼성 시네마 LED 오닉스 스크린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네마 경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패넬 세션 ‘삼성 오닉스: 시네마 경험을 재정의하다’도 15일에 개최한다.

이 세션에서는 삼성 오닉스를 비롯한 시네마 LED 기술의 발전이 제작자나 촬영 감독 등이 의도한 시각적 요소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관객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차현정 기자

삼성 하만 레디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 HDR10+ 인증

차량 디스플레이 새 기준 제시

삼성전자의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의 레디 디스플레이 제품이 HDR10 플러스(HDR10+) 자동차 인증을 받았다.

하만은 최근 자사 레디 디스플레이 제품이 업계 최초로 HDR10 플러스(HDR10+) 자동차 인증을 획득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 성능에 대한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만은 삼성전자, 파나소닉과 협업하여 차량에서 HDR(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HDR10 플러스 자동차 기술 사양을 선도적으로 정립했다. HDR10 플러스 테크놀로지 LLC(HDR10+ 관련 컨소시엄 연합)에서 제정한 이 인증을 받은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차량 내 변화하는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HDR 콘텐츠를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테스트들은 디스플레이가 다양한 차량 운행 상황·환경 내 조명 조건과 시야



하만의 자사 레디 디스플레이 제품이 HDR10 플러스(HDR10+)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

각에서 일관된 밝기, 대비, 색상 정확도를 갖춰 영화 같은 고해상도 화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또한 이 인증은 주변의 조명에 따라 밝기와 색상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한낮의 햇빛이나 도시의 불빛에서 운전할 때 일관된 시청 경험을 보장하는 HDR10 플러스 ‘어댑티브’ 기술도 적용한다.

이번 기술 인증은 하만과 삼성전자 하만협력팀의 협업을 통한 기술 표준화

주도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성과로 하만은 업계 최초의 HDR10 플러스 자동차 인증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게 되었으며 운전자와 승객은 어떠한 조명 조건에서도 영화 같은 깊이감, 디테일, 일관성을 갖춘 생생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자동차 업계 최초 HDR10 플러스 도입은 단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 인증을 넘어선 하만의 고품질 오디오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시너지지를 통해 차량 내에서 고객들의 차별화된 고해상도 비디오와 몰입감 높은 고품질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만 레디 디스플레이 사업 책임자인 실과 델리 상무는 “우리는 오랫동안 거실에서의 경험을 차량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구상해왔다”며 “세계 최초 HDR10 플러스 자동차 인증 획득은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자동차 제조사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몰입감 넘치는 차량 내 디스플레이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LCPL 지분 매각

총 1276억 자금 확보 마무리

롯데케미칼은 자회사인 LCPL(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법인) 지분 75.01% 매각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LCPL은 폴리에스터 섬유, 산업용 원사, 페트(PET)병 등에 활용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을 연간 50만 톤 규모로 생산하는 회사다.

매수인은 파키스탄 사모펀드 ‘아시아 팩 인베스트먼트(API)’와 아랍에미리트 석유·화학 트레이딩 기업 몽타주 커머디티즈 FZCO(Montage Commodities FZCO)가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 ‘PTA 글로벌 홀딩’(PTA Global Holding Ltd)이다.

이번 매각은 2025년 2월 19일 공시 후 진행돼 9월 주식공개매수 절차 종료를 거쳐 12일 거래대금 지급과 주식 교환이 최종 마무리됐다. 총 매각대금은 980억원이며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6월 수취 완료한 3개년 배당금 296억원을 포함해 총 1276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롯데케미칼은 2023년부터 범용 제품 중심의 LCPL을 사업 포트폴리오상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하고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번 거래로 롯데케미칼은 파키스탄 내 구제금융 및 환율 변동 등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원관희 기자 wkh@